

한자어 어기(漢字語語基)와 고유어 접사성(接辭性) 형태소의 결합에 대한 통시적 고찰

이현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선임연구원, 국어사 전공

leehj@aks.ac.kr

- I. 머리말
- II. 국어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의 특징
- III.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사성 형태소의 결합 양상
- IV. 한자 파생어가 겪은 통시적 변화의 특징
- V. 맺음말

I. 머리말

일반적으로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는 고유어 형태소와 다르게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어 형태소와 한자어 형태소를 구별하는 일은 국어의 단어형성을 기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한자어 형태소는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고 고유어 형태소는 고유어 형태소와 결합한다.¹⁾ “산마루, 안房, 藥畝, 흙벽”과 같은 한자어 어휘형태소와 고유어 어휘형태소와의 결합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자어 형태소와 고유어 형태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한자어 어기(漢字語語基)에 고유어(固有語) 파생접사(派生接辭)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파생접사의 결합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볼 수 있다. “閑暇하다, 害롭다, 情답다, 實로, 艱辛히”와 같이 문법기능의 범주를 변화시키는 파생접사가 한자어 어기에 결합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이고, “맡兄, 외固執, 덧門, 군食口”와 같이 의미의 첨가를 담당하는 고유어 파생접사가 한자어 어기에 결합하는 예가 두 번째 경우이다.

그러나 국어의 모든 고유어 파생접사가 고유어 어기에서와 똑같은 제약을 가지고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유어 어기와 별 차이 없이 한자어 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 파생접사도 있지만, 한자어 어기에 전혀 결합할 수 없는 파생접사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반대로 국어 한자어 중에는 국어 파생어 형성에 어기로 참여할 수 있는 한자어도 있지만, 전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자어도 존재한다.

우리는 먼저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가지는 이러한 제약이 고유어 형태소와 구별되는 한자어 형태소의 특징에서 연유할 것이라 가정하고, 한자어 형태소의 특징 및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에 고유어와 구별되는 형태론적 특징을 지닌 한자어 형태소가 고유어 파생접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고유어 파생접사와 결합할 수 있는 한자어 어기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하고, 또 그 반대로 한자어 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 파생접사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虛僞的’, ‘大田’, ‘한밭’의 경우 *거짓의, *대밭, *한田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II. 국어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의 특징

1. 국어 한자어의 확립

‘한자어(漢字語)’란 말 그대로 “국어 어휘 중에서 한자(漢字)로 표기할 수 있는 단어”이다.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기원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 중국어에서 차용된 단어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들도 한자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어의 예로는 ‘삼촌(三寸), 사촌(四寸), 생각(生覺)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한자로 구성된 한자어의 예로는 ‘장롱(穢籠), 책장(冊穢), 전답(田畓), 옥답(玉畓), 대지(埭地), 시가(媿家), 시택(媿宅), 삼돌(三疇)’ 등이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어에서 기원한 단어일지라도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한자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단어들은 중국어에서 차용되었지만 한자와의 연관성을 잃어버려서 언중들에게 더 이상 한자어로 인식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자어라고 보기 어렵다.

국어 어휘 중에는 고대 중국어의 차용어로 보이는 ‘붓(筆), 먹(墨)’ 등이 있고 근세 중국어에서 차용된 ‘배추(白菜), 김치(沈菜), 가지(茄子), 고추(苦草), 앵두(櫻桃)’ 등이 있는데, 이들 역시 언중들이 이미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자어라고 볼 수 없다.

한자어가 통시적으로 ‘음운변화’라는 고유어화 과정을 거치면 ‘한자어’에서 개주(改鑄)된 고유어가 된다.²⁾ 이들의 처음 생성은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공시적으로는 언중들 사이에서 한자어라는 의식이 이미 사라진 어휘들이다. 여기에 속하는 어휘에는 ‘사냥(狩獵), 성냥(燐寸), 장난(惡戲, 遊戲), 짐승(禽獸)’ 등이 있다.³⁾

이러한 방식으로 국어 한자어를 정의하고 나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해

2) 趙世用, 『漢字語에서 改鑄된 歸化語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1986) 참조.

3) ‘사냥(狩獵)<산양<산영<*산잉 ← 산형(산행)’, ‘성냥(燐寸)<석냥<석뉴왕 ← 석류황(石硫黃)’, ‘장난(惡戲, 遊戲)<작난 ← 작란(作亂)’, ‘짐승(禽獸)<즘승<즘승<즘잉 ← 중잉(衆生)’. 趙世用, 위의 논문 참조.

야 할 문제는 국어 속에 존재하는 한자어가 모두 대등한 국어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자어 “母親, 國家”와 한자어 “江, 兄” 등은 모두 국어 한자어이지만 대등한 국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자어 “母親, 國家”의 경우에는 대응하는 고유어 “어머니, 나라”가 존재하지만, 한자어 “江, 兄”과 대응하는 고유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어의 한자어를 “母親, 國家”류와 “江, 兄”류로 나누는 것은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사성 형태소의 결합 양상을 연구하는 이 글에서 매우 유용한 작업이다. “母親, 國家”류의 한자어에는 고유어 접사성 형태소가 결합하지 못하지만, “江, 兄”류의 한자어에는 고유어 접사성 형태소가 결합할 수 있다. “江, 兄”류의 한자어에는 고유어 접사성 형태소가 결합한 “만형, 셋강” 등의 단어형성이 가능하다.

“母親, 國家”류의 한자어와 “江, 兄”류의 한자어가 이러한 차이를 갖는 것은 두 유형의 한자어들이 고유어화한 정도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유어화의 차이가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차이를 나타나게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국어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의 기능

앞 절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이유로 국어 단어 속에 편입된 한자어는 단어형성 면에서는 고유어와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유어 파생접사가 고유어 어기와 결합할 때와 똑같은 양상으로 한자어 어기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고유어 어기에는 자유롭게 결합하는 파생접사가 한자어 어기와는 전혀 결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형식의 파생접사가 결합하는 방식이 한자어와 고유어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일으키는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특수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자어 형태소는 말 그대로 한자로서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형태소를 총괄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고유어 형태소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한자어 형태소는 국어의 일부로 존재하지만, 고유어 형태소와는 상당히 다른 음운론적·형태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 문제 또한 고유어의 분석 문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⁴⁾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하는 한자어 형태소의 가장 큰 특징은 ‘비자립

성이다. 한자어 형태소의 일음절(一音節) 일음절은 대개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고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하지만, 하나의 형태소가 자립적인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경우는 드물다. 국어의 한자어가 대부분 이음절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도 이 특징과 유관하다.⁵⁾ 한자어 형태소들은 대부분 자립형태소(*free forms*)가 아니라, 의존형태소(*bound forms*)인 것이다.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나라-國家”, “할아버지-祖父”, “아버지-父親”이라는 고유어와 한자어를 비교해보면 고유어 “나라, 할아버지, 아버지”의 경우는 하나의 형태소로 자립적인 명사어간을 이루지만, 한자어 “國家, 祖父, 父親”의 경우에는 2개의 형태소가 결합해 자립적인 명사어간을 이룬다.

한자어 형태소가 비자립성을 해결하고 자립적인 국어 단어로 기능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다른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여 이음절(二音節) 이상의 한자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유어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자립적인 국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國家, 祖父, 父親”의 경우처럼 이음절(二音節) 한자어를 이루는

4) 국어 한자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음절 이상의 한자어 어간을 형태소 분석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국어 漢字語 연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주제 중의 하나였다. 형태소의 개념은 고유어 단어형성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漢字語의 형태론적 성격을 구명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漢字語 단어형성 연구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다. 이희승(1955)이나 최현배(1955)에서는 漢字語의 漢字 하나하나를 모두 단어로 취급해 ‘歲月, 春秋, 烈女’ 등을 두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로 취급했다.

漢字語의 漢字 하나하나를 단어의 개념이 아닌 형태소의 개념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안병희(1965)에서부터였다. 이때부터 漢字語의 漢字 一音節은 형태소의 자격으로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인식되었다.

漢字語의 단어형성 연구에서 漢字 一音節 중에는 형태소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漢字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李翊燮(1968)과 李翊燮(1969)에서부터였다. 漢字 하나하나가 반드시 단어이거나 형태소인 것은 아니므로 非一音節 漢字語로서도 단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첫 번째 유형으로는 ‘矛盾, 珊瑚, 葡萄’ 등이 해당한다. ‘矛’는 ‘盾’ 이외의 어떠한 형태소와도 만나는 일이 없고 ‘盾’은 ‘矛’ 이외의 어떠한 형태소와도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矛盾’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언어형식’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總角, 饅頭, 抱杞’ 등이 해당되는데 사용된 漢字의 의미상의 공통성 문제로 역시 형태소의 자격을 줄 수 없는 것들이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非中國語를 표기하기 위해 쓰인 한자어가 해당된다. ‘菩薩, 奈落, 袈裟, 巴里, 伊太利’ 등이 그 예이다.

5) 송기중(1992)에서는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漢字語 형태소가 가지는 ‘비자립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국어형태론”을 무리없이 기술하려면, 국어의 형태소를 ‘한자 형태소’와 ‘非漢字 형태소’로 구분하고, 양자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언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자 형태소를 우선 고유어의 형태소와 마찬가지로 크게 의존형태소와 자립형태소로 나누고, 다시 완전 자립형태소, 제한적 자립형태소, 의사 자립형태소로 분류하여 고유 형태소와 구별되는 한자 형태소의 ‘비자립적’ 성격에 주목하였다.

경우가 전자의 예이고, “골草, 찰穀, 햇穀, 꽃草, 햇筍”처럼 고유어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자립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후자의 예이다.

고유어 형태소와 구별되는 한자어 형태소의 두 번째 특징은 단어형성에서 갖는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형태론적 기능의 제한성”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한자어 형태소는 조사나 활용어미와 같은 문법적 형태소는 소수이고 대부분이 어휘적 형태소이다. 뿐만 아니라 단어의 문법기능 범주를 바꿔주는 파생접사 또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⁶⁾

한자어 형태소가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갖는 의미기능에 따라 크게 ‘명사성 형태소’⁷⁾, ‘서술명사성 형태소’, ‘수식사성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⁸⁾ 한자어 형태소는 ‘명사성, 서술명사성, 수식사성’과 같은 의미자질을 가지고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한다. 그런데 이 중 한자어 형태소만으로 온전한 자립어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명사성 형태소’뿐이다. 나머지 ‘서술명사성 형태소’와 ‘수식사성 형태소’들은 한자어 형태소만으로 자립적인 서술어 어간이나 수식어 어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들이 자립적인 서술어 어간과 수식어 어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유어 접사와 결합해야 한다. “定하다, 形成하다, 恨스럽다” 등의 서술어 어간과 “實로, 畵혀” 등의 수식어 어간이 이에 해당한다.

- 6) 한자어 형태소 중에 문법성 형태소나 접사성 형태소의 자격을 갖는 경우가 있음을 논문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께서 지적해주셨다. ‘-의’의 경우는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관형격조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사상, 사실상” 등에서의 ‘-상’은 한자어 명사어간을 부사어간으로 바꾸어준다. 그리고 ‘對-’, ‘反-’ 등도 접두사성 형태소의 기능을 수행한다.
- 7) ‘명사성’이란 자립형식 ‘명사’와 구별하고, ‘명사적 성격의 형태소’라는 개념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한자어 형태소 중에는 완전한 명사어간의 기능을 발휘하는 자립형식들도 존재하지만, 명사적 성격의 의미기능만 발휘하는 의존형식이 다수 존재한다.
- 8) 한자어 형태소를 국어 단어형성에서 갖는 의미기능에 따라 크게 ‘명사성 형태소’, ‘서술명사성 형태소’, ‘수식사성 형태소’로 나누는 것은 송기중(1992)에서 가져온 것이다. 송기중(1992)의 내용을 토대로 한자 형태소가 한자어 단어형성에서 발휘하는 기능을 간단히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성 형태소	自立형태소	江, 册, 山
	自在的 의존형태소	國民, 祖父, 天國, 元首
	制限的 의존형태소	政治家, 椅子, 政治的
서술 명사성 형태소	自在的 의존형태소	形成, 成佛, 入校, 確信
	制限的 의존형태소	不可, 非公開, 兼務
수식사성 형태소	自在的 의존형태소	大家, 小都市
	制限的 의존형태소	既得, 再嫁, 各家庭

우리는 Ⅲ장에서 국어 단어형성에서 ‘비자립성’과 ‘형태론적 기능의 제한성’을 갖는 한자어 형태소가 고유어 파생접사와 결합하여 어떻게 온전한 국어 단어로 기능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Ⅲ.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사성 형태소의 결합 양상

1.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

일반적으로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는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고 고유어 형태소는 고유어 형태소와 결합한다. 그런데 국어의 단어형성에서는 한자어 어기에 의미를 첨가하는 고유어 접두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만兄, 덧門, 군食口, 개亡身, 햇穀食, 찰穀, 헛所聞” 등이 그 예이다.⁹⁾

이러한 결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국어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발휘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우리는 송기중(1992)의 개념을 가져와 한자어 형태소를 ‘명사성 형태소’, ‘서술명사성 형태소’, ‘수식사성 형태소’로 분류하였다. 한자어 형태소는 이 중에 “大家, 小都市, 既得, 再嫁, 各家庭”에서 보이는 “大, 小, 既, 再, 各” 등의 ‘수식사성 형태소’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수식사성 기능은 고유어 접두사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한자어 어기에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¹⁰⁾가 결합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9) 위에서 제시한 한자어 어기는 ‘伯兄, 外門, 客食口, 新穀食, 眞穀, 空所聞’ 등과 같이 고유어 접두사와 같은 뜻을 지닌 한자어 형태소와 결합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어휘 사용빈도는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와의 결합이 훨씬 우세하다.

10) 이 글에서 ‘접두사성 형태소’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국어의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파생접두사’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파생접두사는 공식적으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으며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 흔히 ‘의존성’, ‘어기의 자립성’, ‘분리성’, ‘후속어의 제약성’, ‘대치 가능성’, ‘의미의 변화 여부’ 등이 파생접두사를 변별하는 기준이 되어왔다.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생산력 있는 파생접두사로서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파생접두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계열을 이루고 새로운 단어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두사성 형태소’는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파생접두사가 아니라 한자어 어기에 선행하는 고유어 형태소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파생접사가 결합한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결합인 고유어 형태소에 한자어 수식사성 형태소가 결합한 경우가 발견된다.

- (1) 돌 위횃 대버물(大범) 〈龍歌:87〉
 소밥을(素밥) 아니 먹더니(不素食) 〈內訓1:65〉

‘대범’은 한자어 형태소 ‘大’와 고유어 형태소 ‘범’이 결합한 경우이고, ‘소밥’¹¹⁾은 한자어 형태소 ‘素’와 고유어 형태소 ‘밥’이 결합한 예이다.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와 한자어 어기의 결합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은 17, 18세기인 근대국어에 들어서이다. 근대국어에 이르면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 (2) ㄹ: ㄹ백일(ㄹ白日) 〈御內2:61〉, ㄹ三十二歲 〈老諺上:57〉
 나: 니濁酒 〈靑丘:40〉
 다슴-: 다슴자식(다슴子息) 〈內訓三:22〉
 돌-: 돌삼(돌蔘: 野蔘) 〈譯解下:41〉
 되: 되혹당(되學堂: 漢兒學堂) 〈鱗老上:2〉
 된: 된쇼쥬(된燒酒: 乾燒酒) 〈譯補:30〉
 ㄹ: ㄹ미부(ㄹ妹夫) 〈漢淸五:40〉, ㄹ자식(ㄹ子息) 〈御內一:70〉,
 ㄹ처남(ㄹ妻男) 〈漢淸五:41〉
 ㄹ/ㄹ-: ㄹ비단(ㄹ緋緞: 素段子) 〈老諺下:62〉 〈朴重上:43〉
 ㄹ/ㄹ-: ㄹ신하(ㄹ臣下) 〈十九二:18〉, ㄹ백성(ㄹ百姓) 〈十九一:12〉
 ㄹ: ㄹ소병(ㄹ燒餅) 〈漢淸十二:46〉, ㄹ전병(ㄹ煎餅) 〈漢淸十二:45〉
 ㄹ: ㄹ남편(ㄹ男便) 〈靑丘:118〉
 쇼대: 쇼대난편(쇼대男便)(셋서방) 〈靑丘:118〉, 쇼대남진(間夫) 〈靑丘:101〉
 수-: 수양(수羊: 公羊) 〈漢淸十四13〉
 알-: 알燈 〈海東116〉
 암-: 암居士 〈靑丘:107〉, 암양(암羊) 〈譯解下:32〉
 쯤-: 쯤장식(쯤裝飾) 〈漢淸五:26〉
 첫-: 첫호령(첫號令: 下馬威) 〈譯補:56〉
 푸-: 푸디접(平待接) 〈靑丘:81〉

11) 許雄(1975)에서는 접두사 ‘소-’의 의미를 현대국어의 ‘맨손, 맨밥’의 ‘맨-’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현대국어에서 ‘소밥’은 ‘고기반찬이 없는 밥’의 의미로 쓰인다.

현대국어적인 직관으로 위의 결합에서 작용하는 형태론적이나 의미론적인 제약을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들 결합에 사용된 한자어 어기는 모두 자립적인 명사어간임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 이르면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는 더욱 늘어난다.

- (3) 말-: 말間, 말喪制, 말孫女, 말孫子, 말兄, 말兄嫂, 말兩班, 말同墻
- 군-: 군對答, 군食口, 군飲食
- 개-: 개亡身, 개綿馬, 개酬酌, 개楊貴妃, 개茵香
- 골-: 골病, 골百番, 골生員, 골草
- 된-: 된鍼, 된辱
- 맨-: 맨練習, 맨封堂, 맨宕巾
- 민-: 민玉簪, 민簪, 민土器, 민版, 민花鬪, 민會相
- 불-: 불號令
- 울-: 울沙果, 울作物, 울播種
- 찰-: 찰穀, 찰穀食, 찰敎人, 찰舊式 찰怨讐, 찰煎餅
- 끗-: 끗面目, 끗手, 끗鬚髯, 끗實果, 끗情, 끗草, 끗將棋, 끗香氣
- 햇-: 햇穀, 햇果實, 햇穀食, 햇筍
- 홀-: 홀機械, 홀母音, 홀板, 홀層, 홀壁
- 맞-: 맞手, 맞床, 맞敵手, 맞婚姻, 맞契約, 맞告訴, 맞交代, 맞對面, 맞對答, 맞貿易, 맞壁, 맞邊, 맞相對, 맞訴訟, 맞辱, 맞弔喪
- 덧-: 덧間, 덧門, 덧枋, 덧生長, 덧數, 덧洋襪, 덧印刷, 덧長靴, 덧壯版, 덧窓, 덧窓門, 덧情, 덧幅
- 강-: 강病, 강燒酒, 강酒酌, 강號令, 강蝨, 강膾
- 겉-: 겉假量, 겉對答, 겉酬酌
- 막-: 막菓子, 막勞動, 막燒酒, 막醬, 막草, 막土, 막筆
- 밧-: 밧邊, 밧角, 밧面, 밧投影, 밧板
- 엇-: 엇對答, 엇保, 엇調
- 외-: 외固執, 외骨髓, 외獨子, 외門, 외文匣, 외墳上, 외床, 외城, 외字
- 웃-: 웃殿, 웃錢
- 좀-: 좀盜賊, 좀生員, 좀兩班
- 즐-: 즐辭說, 즐初喪, 즐行廊
- 진-: 진飯饌, 진不淨, 진按酒, 진飲食
- 통-: 통饅頭, 통帽子, 통盤石

헛: 헛間, 헛公論, 헛 嘔逆, 헛農事, 헛童子, 헛膜, 헛盟誓, 헛文書, 헛所聞,
헛手票, 헛利益, 헛人物, 헛壯談, 헛組織, 헛廳, 헛銃

제한된 문헌자료를 대상으로 검토한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의 예들을 현대국어의 예들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만, 현대국어로 올수록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이 활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국어 자료에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현상은 중세국어에서는 한자어가 고유어화한 정도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한자어는 고유어화된 정도에 따라서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행할 수 있는 기능이 다름을 지적한 바 있다. [+외래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던 한자어가 대응되는 고유어를 소실시키고 국어의 단어로 자리 잡는 고유어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의미의 첨가'를 담당하는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와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자어의 고유어화 과정이 중세나 근대를 거쳐 현대국어로 오면서 점차 확대되었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급증한 것은 바로 한자어의 고유어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가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으로 구성된 파생어의 형태론적 제약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때 발생하는 형태론적 제약은 앞에서 우리가 정리한 국어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기능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우리는 국어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기능을 '명사성 형태소', '서술명사성 형태소', '수식사성 형태소'로 나누었다. 이때 '수식사성 형태소'는 단독으로 독립적인 어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한자어 형태소는 '명사성 형태소'와 '서술명사성 형태소' 두 가지가 파생어 형성에서 어기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한자어 어기는 '명사성 형태소'이든 '서술명사성 형태소'이든 모두 '명사성'의 기능밖에 갖지 못한다. 이러한 한자어 어기의 제한된 형태론적 기능으로 인해 고유어 명사어간과 결합하는 대부분의 고유어 접두사는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지만, “되-(되갈다, 되걸리다), 내-(내빼다,

내뻘치다) 등과 같은 고유어 서술어 어기와 결합하는 접두사는 한자어 어기와 전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2.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미사성 형태소의 결합

1) 명사형성 파생접미사와의 결합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미사성 형태소의 결합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와의 결합과 마찬가지로 국어 단어형성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와의 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자어 어기는 모든 고유어 접미사성 형태소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미사성 형태소의 결합에서 발생하는 형태론적 제약 역시 한자어 형태소가 가지는 '형태론적 기능의 제한성'과 관련이 있다. 앞서 우리는 한자어 어기는 '명사성'이든 '서술명사성'이든 '명사성'의 기능만 갖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한자어 어기에는 명사성 어기에 결합하는 접미사만 결합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에서는 한자어 어기의 '고유어화' 정도가 그 결합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자어 어기와 파생접미사의 결합은 파생접미사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 어기와 결합이 가능한 파생접미사는 그렇지 않은 접미사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중세국어에는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파생접미사가 결합하여 명사어간을 형성한 예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4) -바지: 흥정바지(興定바지) 〈楞嚴三:88〉

-질: 슈질(繡質) 〈黼朴上:14〉, 도죽질(盜賊質) 〈小諺二:55〉

15세기에는 '바지'가 자립명사어간으로 쓰이기도 했다. “장은 바지라 〈法華序:21〉”, “바지로이 흥고 〈杜詩 20:27〉”가 그 예이다. 이 '바지'가 점차 명사와 결합하여 '-을 하는 사람'의 용법으로 쓰이면서 파생접미사화하였을 것이다. '바지'는 '바치'로도 나타나는데 '바치는 하향이중모음 'ㅣ'나 'ㄹ', 'ㅅ' 뒤에서 나타날 때 첫음절 'ㅂ'이 순경음 '빙'이나 반자음 '오/우'로

나타나 ‘와치’로 나타나기도 한다.¹²⁾

접미사 ‘-바치’와 ‘-질’은 이 당시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접사인 것으로 보인다. ‘-바치’가 고유어 어기와 결합한 예로 “성냥바치<楞嚴三:88>, 썩와치<飜朴上:18>, 활와치<飜朴上:59>” 등이 보이고, ‘-질’이 고유어 어기와 결합한 예로는 “뜰에질<三綱孝:7>, 부체질<小諺二:64>” 등이 보인다. 중세국어에서 ‘-바치’와 ‘-질’은 생산성이 높은 접사였기 때문에 한자어 어기 ‘興定’, ‘繡’, ‘盜賊’ 등과 결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근대국어로 오면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는 고유어 파생접미사의 수는 더욱 늘어난다.

- (5) ① -이: ㄱ. 동물명 杜鵑이 <譯解下:28>
 ㄴ. 식물명 芍藥이(紫葳이) <漢清十二38>, 芎藭이 <東醫二:43>
- ② -바치/아치: 풍류아치(風流아치) <譯解上30>, 흥정바치(興定바치) <老諺下24>
- ③ -질: 노략질(擄掠질) <五倫二62>, 도적질(盜賊질) <十九一61>, 창질(槍질) <漢清八9>
- ④ -장이/장이: 니장이(泥匠이) <譯補19>

‘-이’는 현대국어에서도 생산적인 파생접미사인데, 명사성 어기나 의성어, 의태어에 결합하여 ‘-와 같은 성질 또는 특징을 갖는 것(사람, 동물, 사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명사어간을 파생시킨다.¹³⁾ (5①ㄱ)은 한자어 어기에 ‘-이’가 결합한 동물명이고, (5①ㄴ)은 식물명이다.

중세국어 ‘바치’에서 변한 ‘와치’는 다시 ‘w’의 약화를 입어 ‘-아치’로 나타난다(풍류아치<譯解上:30>, 풀무아치<漢清5:31>). 이때는 이미 ‘바치’와의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파생접사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명사어간이나 비자립적인 어근을 어기로 하여 행위명사를 파생시키는 파생접사 ‘-질’은 이 당시에도 상당히 생산적인 파생접사여서 한자어 어기와 결합한 예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현대국어에서 ‘-질’은 ‘구체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어기나 ‘직업, 신분’ 등을 지칭하는 어기에 결합하여 그 어기와 관련된 행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는 명사어간을 파생시키는

12)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國語學叢書 30(太學社, 1998), 88-89쪽 참조.

13) 宋喆儀,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제약 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1988), 98-105쪽 참조.

경우가 흔한데, 근대국어 시기에도 비슷한 기능을 가졌던 것 같다. ‘노략’이나 ‘도적’과 같은 부정적인 어기에 결합한 사실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장이’는 “어떤 분야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의미를 갖는 명사어간을 파생시키는 접사이다. ‘장이’는 한자어 형태소 ‘匠’에 유정명사화소 ‘이’가 결합한 것이므로 고유어보다는 오히려 한자어에 더 잘 결합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근대국어에서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바지/아치’, ‘-질’, ‘장이’는 근대국어 시기에 명사성 어기와 결합하는 가장 생산성이 높은 파생접사들이었다. 이들 접사와 결합된 어휘들은 일정한 계열을 이루고 있어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생접사였던 것으로 짐작된다.¹⁴⁾

현대국어에서 한자어 어기와 가장 잘 결합하는 파생접미사로는 ‘이’, ‘-질’, ‘장이’, ‘-꾼’이 있는데, 앞선 근대국어와 별 차이점이 없다. ‘-꾼’이 하나 더 추가되었을 뿐이다. 파생접미사 ‘이’, ‘-질’, ‘장이’, ‘-꾼’은 명사성 어근이나 어간을 어기로 취해서 명사어간을 파생시키는 현대국어에서 가장 생산적인 파생접미사들이다. 다음은 ‘이’, ‘-질’, ‘장이’, ‘-꾼’이 한자어 어기와 결합한 명사어간들이다.

(6) -이¹⁵⁾: 却說이, 寒心이, 虛風扇이

-질¹⁶⁾: ① 競爭질, 弄奸질, 誹謗질, 嘔逆질, 看參질, 間婚질, 高喊질, 亂刀질, 亂刺질, 亂杖질, 弄蕩질, 逃亡질, 面刀질, 妨害질, 石手질, 養齒질, 戀愛질, 廉探질, 辱질, 衝動질, 毀謗질 ② 強盜질, 妾질 先生질, 告者질 奸臣질, 居間질 過客질, 盜賊질, 大將질, 逆賊질, 訓長질

-장이¹⁷⁾: ① 石手장이, 漆장이, 甕器장이, 看板장이, 壯版장이, 柳器장이,

14) 가. ‘-바치’와 결합한 명사파생어간, 나. ‘-질’과 결합한 명사파생어간, 다. ‘장이’와 결합한 명사파생어간.

15) ‘이’는 명사성 어근이나 의성어, 의태어에 결합하여 대체로 ‘-와 같은 성질 또는 특징을 갖는 것(사람, 동물, 사물)’이라는 의미를 갖는 명사어간을 파생시킨다(宋喆儀, 앞의 논문, 98-105쪽 참조). (6)의 예들은 ‘却說’, ‘寒心’, ‘虛風扇’에 ‘이’가 결합하여 행위명사가 되었다.

16) ‘구체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어기나 ‘직업, 신분’ 등을 지칭하는 어기에 ‘-질’이 결합하여 그 어기와 관련된 행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갖는 명사어간을 파생시키고 있다. ①의 예들은 ‘어떤 행위’를 뜻하는 한자어 어기에 ‘-질’이 결합하여 그 행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가진 명사어간을 파생시킨 예들이고, ②는 ‘신분’을 나타내는 한자어 어기에 ‘-질’이 결합하여 그 직업이나 신분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비하하는 명사어간을 파생시킨 예들이다.

土器장이, 家具장이, 圖章장이 ② 妖術장이, 演劇장이, 觀象장이, 鍼장이, 四柱장이, 時計장이, 彫刻장이, 裝飾장이 ③ 怯장이, 固執장이, 無識장이, 變德장이

-꾼¹⁸⁾: ① 來往꾼 勞動꾼 論爭꾼 農事꾼, 盜掘꾼, 逃亡꾼, 盜伐꾼, 漫談꾼, 望꾼, 埋葬꾼, 問喪꾼, 密獵꾼, 妨害꾼, 步行꾼, 不平꾼, 詐欺꾼, 廉問꾼, 廉探꾼, 陰謀꾼, 雜談꾼, 中媒꾼, 投機꾼, 毀謗꾼 ② 能手꾼, 無識꾼, 模樣꾼, 手段꾼, 是非꾼, 時勢꾼, 妖邪꾼

국어에서 명사성 어기와 결합하는 가장 생산적인 파생접미사 ‘-이’, ‘-질’, ‘-장이’, ‘-꾼’은 그 어기가 한자어이나 고유어이나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국어의 파생접미사 중에서 생산력이 약한 파생접미사는 한자어 어기와 잘 결합하지 못한다. ‘-결(아침결, 영결결), -대가리(맛대가리, 멋대가리), -빼기(코빼기, 키빼기), -살(구김살, 눈살), -아치(동냥아치, 벼슬아치)’ 등의 접사가 그 예이다.¹⁹⁾

명사어간 형성의 파생접미사 중에서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는

-
- 17) ‘-장이’는 ‘어떤 분야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의미를 갖는 명사어간을 파생시키는 접사이다. ①의 예들은 ‘어떤 분야의 기술을 가진 사람’, ②의 예들은 ‘어떤 일을 전문적 혹은 작업적으로 하는 사람’, ③의 예들은 ‘-을 잘하는 사람’, ‘-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어간들이다.
- 18) ‘-꾼’은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한자어 어기나 ‘행위자의 속성’을 나타내는 한자어 어기와 결합하여 그 행위나 속성과 관련된 인성명사를 파생시킨다. ①의 예들은 ‘구체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한자어 어기에 ‘-꾼’이 결합한 예이고, ②의 예들은 ‘행위자의 속성’을 나타내는 한자어 어기에 ‘-꾼’이 결합한 예들이다.
- 19) 이 외에도 생산성이 ‘-이’, ‘-질’, ‘-장이’, ‘-꾼’에 떨어지긴 하지만,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는 명사어간 형성 파생접사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꾸러기: 心術꾸러기, 慾心꾸러기, 賤待꾸러기
 - 내기: 普通내기, 新出내기
 - 동이: 才幹동이, 順동이, 六朔동이
 - 뜨기: 村뜨기, 七뜨기
 - 머리: 口辯머리, 所見머리
 - 박이: 金박이, 本土박이, 板박이
 - 발: 旗발, 麵발, 鬚髯발
 - 배기: 孤貞배기, 六字배기, 黃土배기
 - 보: 怯보, 膽보, 慾心보
 - 붙이: 金붙이, 妻家붙이, 親庭붙이
 - 새: 門새, 變새, 出斂새
 - 지기: 慕지기, 門지기, 別莊지기
 - 짜: 假짜, 眞짜, 怪짜, 傑짜, 退짜
 - 치기: 當年치기, 當日치기, 本錢치기
 - 치레: 病치레, 人事치레, 體面치레

고유어 파생접미사는 공식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강하였던 파생접미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서술어 어간 형성 파생접미사의 결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어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는 ‘명사성’이든 ‘서술명사성’이든 ‘명사성’의 기능밖에 갖지 못한다. 따라서 서술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유어의 서술어 어간 형성 파생접미사와 결합해야만 한다.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사의 결합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한자어 어기와 서술어 어간 형성의 고유어 파생접사가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자어 형태소가 국어의 서술어 어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하-’와 결합하는 것이다. 沈在箕(1982)에서는 ‘-하-’의 성격을 선행소를 단순히 통사적으로 서술어가 되게 하는 동사화소(動詞化素)라고 규정하였다. 여타의 파생접사와는 달리, 이 ‘-하-’는 뚜렷한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이 ‘-하-’를 한자어 어기에 가장 잘 결합할 수 있게 하였다.

먼저, 한자어 어기에 결합해 동사를 파생시키는 기능은 ‘-하-’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도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7) 간ᄃᆞ(諫ᄃᆞ-) <十九-:39>, 고ᄃᆞ(告ᄃᆞ-) <新續孝:28>, 과ᄃᆞ(過ᄃᆞ-) <同文下:26> <漢青十16>, 굴ᄃᆞ(屈ᄃᆞ-) <新續忠一:39>, 금ᄃᆞ(禁ᄃᆞ-) <漢清二:51>, 녀ᄃᆞ(念ᄃᆞ-) <五倫五:20> <同文上:43>, 녀ᄃᆞ(臨ᄃᆞ-) <五倫二:43>, 당ᄃᆞ(當ᄃᆞ-) <漢清六:48>, 던ᄃᆞ(傳ᄃᆞ-) <新續孝一:63>, 덩ᄃᆞ(定ᄃᆞ-) <同文上:40>, 련ᄃᆞ(連ᄃᆞ-) <漢清一:12>, 멸ᄃᆞ(滅ᄃᆞ-) <十九-:49>, 보ᄃᆞ(保ᄃᆞ-) <漢清二:47> 소ᄃᆞ(素ᄃᆞ-) <三剛孝:24>, 응ᄃᆞ(應ᄃᆞ-) <馬諺上:25>, 진ᄃᆞ(盡) <朴重中:53>, 창ᄃᆞ(脹ᄃᆞ-) <漢清八:3>, 칙ᄃᆞ(責ᄃᆞ-) <新續忠一:54>, 초ᄃᆞ(炒ᄃᆞ-) <譯解下:25>, 텃ᄃᆞ(添ᄃᆞ-) <譯解上:60>, 토ᄃᆞ(吐ᄃᆞ-) <同文上:19>, 통ᄃᆞ(通ᄃᆞ-) <漢清四:15>, 파ᄃᆞ(破ᄃᆞ-) <同文上:46>, 패ᄃᆞ(敗ᄃᆞ-) <三譯三:25>, 피ᄃᆞ(避ᄃᆞ-) <同文上:30>, 혹ᄃᆞ(惑ᄃᆞ-) <捷解九:4>

예문 (7)의 예들은 [+동작성]의 의미자질을 가진 한자어 어기에 ‘-ᄃᆞ-’가 결합해 동사어간을 형성하였다. 현대국어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²⁰⁾

- (8) 加하다, 勸하다, 兼하다, 告하다, 求하다, 命하다, 犯하다, 封하다, 願하다, 爲하다, 留하다, 依하다, 臨하다, 定하다, 綴하다, 取하다, 吐하다, 向하다 등

한자어 어기에 고유어 파생접사가 결합하여 형용사어간을 형성하는 양상은 동사어간의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나타난다. 형용사어간의 형성에서도 한자어 어기에 가장 잘 결합하는 파생접사는 ‘-ㅎ-’이다. ‘-ㅎ-’는 [+상태성]의 한자어 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어간을 형성하는 가장 생산적인 파생접사였다. 다음 예문 (9)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에서 한자어 어기에 ‘-ㅎ-’가 결합하여 형용사어간을 형성한 경우이다.

- (9) 艱難 ㅎ- 〈金剛:5〉, 강개 ㅎ-(慷慨 ㅎ-) 〈杜詩6:44〉, 극박 ㅎ-(刻薄 ㅎ-) 〈漢淸六:22〉, 강녕 ㅎ-(康寧 ㅎ-) 〈漢淸肉:14〉, 강포 ㅎ-(强暴 ㅎ-) 〈新續烈二:2〉, 건장 ㅎ-(健壯 ㅎ-) 〈新續忠一:74〉, 검략 ㅎ-(儉略 ㅎ-) 〈漢淸六:30〉, 견실 ㅎ-(堅實 ㅎ-) 〈漢淸六:32〉, 경망 ㅎ-(輕妄 ㅎ-) 〈同文上:22〉, 경첩 ㅎ-(勁捷 ㅎ-) 〈漢淸六:25〉, 경황 ㅎ-(驚惶 ㅎ-) 〈五倫三:21〉, 곤핍 ㅎ-(困乏 ㅎ-) 〈五倫一:32〉, 괴이 ㅎ-(怪異 ㅎ-) 〈朴重中:49〉, 극악 ㅎ-(極惡 ㅎ-) 〈漢淸八:41〉

현대국어에서도 [+상태성]의 비자립성(非自立性) 한자어 어기에 ‘-하-’가 결합하여 형용사어간을 형성한다.

- (10) 困窮하다, 華麗하다, 美麗하다, 奸巧하다, 奸邪하다, 鈍感하다, 順하다, 壯하다, 醜하다 등

동사어간 형성과 달리, 형용사어간 형성에서는 ‘-ㅎ(하)-’ 외에도 다양한 파생접사가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었다. [+상태성]의 한자어 어기가 형용사어간이 되기 위해서는 [+상태성]의 의미자질을 부여하는 다양한 파생접사와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형용사어간 형성의 모든 파생접미사가 한자어 어기에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별로 한자어 어기에 결합할 수 있었던 형용사어간 형성의 파생접미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0) ‘-하-’ 이외에 한자어 어기와 결합하여 동사어간을 형성하는 접사에는 ‘-거리-’와 ‘-대-’가 있는데, 그 예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失性거리다, 衝動거리다, 失性대다, 衝動대다”의 예가 있다.

먼저 중세국어에서 ‘-ㅎ’ 외에 한자어 여기에 결합할 수 있었던 파생접미사로는 ‘-젓/질’, ‘-듭’, ‘-답’이 있었다.

- (11) ① -젓/질: 利益젓- 〈法華六:169〉, 香氣젓- 〈月釋一:44〉
 ② -듭: 【-듭-】 疑心듭- 〈法華五:135〉〈月釋一:15〉, 病듭- 〈月釋13:27〉, 吉慶듭- 〈月釋10:14〉 【-ㄷㅅ(>ㄷ외)-】 疑心ㄷㅅ- 〈月釋1:15〉, 妄靈ㄷㅅ- 〈月釋2:11〉, 辱ㄷㅅ- 〈月釋2:25〉, 利益ㄷㅅ- 〈釋詳9:40〉, 언극ㄷㅅ- 〈釋詳13:56〉, 상ㄷㅅ- 〈月釋1:43〉 【-릅-】 상례릅-〈常禮릅-〉 〈釋詳9:24〉, 受苦릅- 〈月釋14:79〉 〈釋詳9:12〉 【-ㄹㅅ(>ㄹ외)-】 嫌疑ㄹ외- 〈楞嚴2:123〉, 受苦ㄹ외- 〈釋詳9:12〉, 지혜ㄹ외-〈智慧ㄹ외-〉 〈釋詳9:20〉, 상례ㄹ외-〈常禮ㄹ외-〉 〈杜詩6:26〉, 苦ㄹ외- 〈法華3:100〉, 眞實ㄹ외- 〈杜詩8:53〉
 ③ -답: 法답- 〈翻小八:11〉 〈佛頂:10〉 〈永嘉上:24〉 〈小諺2:30〉, 病답- 〈月釋17:19〉, 實답- 〈法華3:16〉, 次第답- 〈법화1:73〉, 體相性分大小답- 〈法華3:37〉

‘-젓/질’은 체언을 어기로 형용사어간을 파생하는 접사였다. 그리고 ‘-듭’은 [-구체성]의 명사성 여기에 결합하여 “-의 속성이 풍부하다”의 의미를 더하는 파생접사였다. ‘-듭’은 선행하는 어기와 후행하는 어미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로 ‘-듭’, ‘-릅’, ‘-ㄷㅅ(>다외)’, ‘-ㄹㅅ(>ㄹ외)’를 갖는다.²¹⁾ 중세국어 당시에도 ‘-릅-/-ㄹㅅ-’와 ‘-듭-/-ㄷㅅ-’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었는데, 근대국어로 오면 전자는 ‘-릅-’으로 그리고 후자는 ‘-되’로 단일화하여 현대국어로 이르게 된다²²⁾. ‘-답/달’은 ‘-듭’과는 구별되는 접사로 ‘-듭’만큼 생산적이지 아니었다. 구분관(1998)에 의하면 ‘-듭’은 “-의 속성이 풍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데 반해, ‘-답’은 “如”의 의미로 쓰였다.²³⁾

21) 구분관(1998)에 의하면 중세국어에서 파생접미사 ‘-듭’은 선행하는 어기와 후행하는 어미의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로 ‘-듭’, ‘-릅’, ‘-ㄷㅅ(>다외)’, ‘-ㄹㅅ(>ㄹ외)’를 갖는다. ‘-듭’은 어기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면 ‘-듭’, ‘-ㄷㅅ(>다외)’가 나타나는데, ‘-듭’은 후행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 쓰이고, ‘-ㄷㅅ(>다외)’는 후행하는 어미가 매개모음이나 모음일 때 쓰인다. 어기가 ‘ㄹ’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릅’, ‘-ㄹㅅ(>ㄹ외)’가 나타나는데, ‘-릅’은 후행하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 쓰이고 ‘-ㄹㅅ(>ㄹ외)’는 후행하는 어미가 매개모음이나 모음일 때 쓰인다. 그런데 후행하는 접사가 부사형의 ‘-이’일 때는 어기가 ‘ㄹ’을 제외한 자음으로 끝나면 ‘-듭’, 어기가 ‘ㄹ’이나 모음으로 끝나면 ‘-릅’으로 나타난다. 구분관, 앞의 책, 179-199쪽 참조.

22) 安秉禧·李琬鎬, 『中世國語文法論』(學研社, 1990), 137쪽 참조.

‘젓/절’, ‘듭’, ‘답’은 중세국어에 명사성 어기로 형용사어간을 파생하는 생산성이 높은 파생접사였다. 명사성 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어간을 파생하는 ‘브르-(새움브르-〈석상9:15〉)’와 같은 접사는 한자어 어기와 결합한 예가 없다.

근대국어에 이르면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는 파생접미사의 수가 조금 늘어난다. ‘젓’, ‘릅/릅’, ‘되’, ‘스릅’이 한자어 어기에 결합할 수 있었다.

(12) -젓: 망녕젓(妄靈젓) 〈漢淸五:44〉〈同文上:19〉, 의심젓(疑心젓) 〈漢淸一:12〉〈同文下:31〉〈漢淸一:12〉〈無冤一:41〉, 직간젓(才幹젓) 〈三譯七:23〉

-릅/릅: 네릅(禮릅) 〈杜重九:31〉, 니릅(利릅) 〈三譯:4〉, 슈고릅(愁苦릅) 〈松江下:9〉, 직조릅(才操릅) 〈十九一:16〉, 폐릅(弊릅) 〈捷解五:22〉, 향기릅(香氣릅) 〈杜重五:4〉, 혐의릅(嫌疑릅) 〈朴重中:34〉, 해릅(害릅) 〈朴重上:13〉, 효도릅(孝道릅) 〈新續孝三:39〉, 간새릅(奸詐릅) 〈三譯六:12〉, 공교릅(工巧릅) 〈譯解上:28〉, 공도릅(公道릅) 〈三譯四:5〉, 상기릅(爽氣릅) 〈漢淸六:19〉, 상서릅(祥瑞릅) 〈朴重十三:17〉, 신기릅(新奇릅) 〈十九一:42〉, 위태릅(危殆릅) 〈同文下:57〉

-되: 정성되(精誠되) 〈東新孝三:39〉, 통성되(忠誠되) 〈東新孝八:20〉, 충성되(忠誠되) 〈續明義一:6〉, 편벽되(偏僻되) 〈過化:13〉, 덕되(德되) 〈御內三:15〉, 복되(福되) 〈寵君:31〉, 망령되(妄靈되) 〈朴諺下:16〉

-스릅: 원슈스릅(怨讐스릅) 〈譯補:21〉

중세국어와 달리 ‘젓’과 결합한 용례가 늘어난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젓’이 그 이전 시기보다 생산적인 파생접사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주연(1994)에서는 근대국어에 나타나는 ‘젓’의 의미를 “동일 가치가 아닌 어기의 의미와 서로 닮은 유사 가치”라고 보았다.²⁴⁾ ‘스릅’

23) 구본관(1998)에 의하면 중세국어의 ‘답’은 ‘듭’의 수의적인 이형태가 아니라 “如”의 의미를 갖는 의존형용사이다. 현대국어의 ‘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를 어기로 하는 의존형용사로서 주로 구체성을 갖는 인성명사와 결합하여 “선행명사의 본질적 성격을 재귀적으로 긍정하여 그 자격이나 가치를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다른 하나는 형용사 형성 파생접미사로서 추상적인 명사와 결합하여 “어기의 속성이 풍부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15세기의 ‘답’은 현대국어의 의존형용사 ‘답’에 이어지고 ‘듭’은 형용사 형성 파생접미사 ‘답’에 이어진다. 구본관, 앞의 책, 179-187쪽 참조.

24) 기주연, 『근대국어 조어론 연구(1)』 파생어편(태학사, 1994), 235쪽 참조.

은 중세국어에서는 보이지 않던 접사이다. 중세국어에 비해 생산성이 약화된 명사성 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어간을 파생하던 ‘-답-’ (끝답-〈杜重七34〉, 얼운답-〈松江下14〉)은 한자어 어기에 결합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현대국어에 오면 한자어 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어간 형성의 파생접사는 훨씬 늘어난다. ‘-답-’, ‘-되-’, ‘-롭-’, ‘-맞-’, ‘-바르-’, ‘-스럽-’, ‘-지-’, ‘-찍-’, ‘-차-’가 있다.

(13) ‘-답-: 貴童子답다, 大丈夫답다, 實답다

‘-되-: 福되다, 辱되다, 老妄되다, 妄靈되다, 猥濫되다, 偏僻되다, 飽滿되다

-롭-: 可笑롭다, 甘味롭다, 慶事롭다

-찍-: 慊然찍다, 未安찍다, 未審찍다, 怪異찍다, 面灸찍다, 殊常찍다, 疑訝찍다, 嫌疑찍다

-스럽-: 可觀스럽다, 奸巧스럽다, 幹能스럽다

-맞-: 變德맞다, 邪風맞다

-바르-: 陽地바르다

-지-: 男性지다, 多氣지다, 誠勤지다

-차-: 氣차다, 漏氣차다, 長차다

현대국어에서 ‘-답-’, ‘-되-’, ‘-롭-’, ‘-찍-’, ‘-스럽-’은 명사성 어기에 결합하여 형용사어간을 파생시키는 가장 생산적인 접사들이다. 이들은 고유어 파생에서도 가장 생산적인 파생접사들이다. ‘-답-’, ‘-되-’, ‘-롭-’은 “어기의 속성이 풍부함”이라는 의미자질을 어기에 첨가하고, ‘-스럽-’은 “어기의 속성에 가깝게 접근했음”이라는 의미자질을 어기에 첨가시키며 형용사어간을 파생한다. 사실 ‘-맞-’, ‘-바르-’, ‘-지-’, ‘-차-’와 결합한 한자어 어기는 소수에 불과하다. 명사어간 형성과 마찬가지로 서술어간 형성의 경우에도 중세국어부터 현대국어까지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파생접미사의 결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파생접미사의 생산성인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이든 근대국어이든 현대국어이든 공시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파생접미사가 한자어 어기에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V. 한자 파생어가 겪은 통시적 변화의 특징

파생접두사에 의한 것이든 파생접미사에 의한 것이든 일단 파생어 형성 규칙에 의해 파생어가 형성되고 나면, 그 파생어는 독자적인 단어의 자격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접사가 결합하기 전의 형식인 어기와는 상관없이 통시적으로 독자적인 변화를 겪을 수도 있으며, 어기가 겪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어기와 그 어기로 구성된 파생어가 각기 다른 통시적 변화를 겪게 되면 그 파생어는 어기와의 파생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공시적인 파생어 형성 규칙으로는 생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어기와 파생어와의 파생관계를 규칙으로 예측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어휘화’라고 한다.

현대국어의 ‘무덤, 주검, 마감, 지붕, 마중, 지팡이, 올라미’ 등의 명사어간은 공시적으로 단일어간으로 인식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파생접사가 결합한 형식이다. ‘무덤, 주검, 마감’은 파생접사 ‘-암/엄’에 의해서 형성된 것들이고, ‘지붕, 마중’은 파생접사 ‘-웅’에 의해 형성된 것들이다. ‘이대, 더욱, 쉽사리’의 경우는 동사나 형용사 어간 ‘인-, 다-, 쉽-’에 부사파생접사 ‘-애, -욱, -사리’가 결합해서 형성된 부사이다. 이 부사들은 이미 생산성을 잃어버린 폐기된 규칙에 의해 형성된 부사들로서 어휘부에 등재된 단어들이었다.

이러한 파생어 형성 규칙의 소멸에 의해 단일 어휘로 굳어지는 통시적 변화를 한자어 어기는 거부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부사어간을 형성하는 생산적인 파생접미사 ‘-이’가 있었다. ‘-이’는 생산성이 강하여서 한자어 어기에 ‘-답-’이나 ‘-롭-’이 결합한 파생어를 다시 어기로 취하여 부사어간을 형성하였다.²⁵⁾

- (14) 法다비 <蒙山:21>, 法다히 <釋詳24:17>, 法다이 <능언7:52>, 情다이 <畿小8:1>, 禮다이 <東新孝:11>, 願다히 <釋詳24:14>

25)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파생어 혹은 합성어는 다시 파생 규칙의 입력부가 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다이’나 ‘-로이’형의 파생어가 많이 발견된다. 구본관(1998)에서는 파생어나 합성어가 다시 파생 규칙의 입력부가 될 수 없다는 제약은 그리 강한 제약은 아니어서 부사형성 파생접미사 ‘-이’가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가 이 제약에서 자유로운 이유는 ‘-이’가 굴절어미에서 왔고, 공시적으로 아주 생산적인 파생 접미사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구본관, 앞의 책, 324-325쪽 참조.

義_ㄹ비 <三行烈:12>, 愁苦로이 <捷解一:12>, 義로이 <東新一:61>, 利로이 <杜重一:8>, 神奇로이 <痘集上:66>

현대국어로 오면서 부사형성 파생접사 ‘이’의 생산력이 약화되면서 언중들에게 ‘다이’나 ‘로이’의 결합형이 어색하게 되었다. 언중들은 ‘다이’나 ‘로이’를 버리고 새로운 형식을 취하게 된다. 현대국어의 ‘法대로, 情답게, 禮답게, 願대로, 義롭게, 愁苦롭게, 利롭게, 神奇롭게’ 등이 새롭게 취한 형식이다.

그러나 고유어 어기의 경우에는 ‘로이’의 결합형이 단일 부사어간으로 굳어진 경우가 일반적이다. ‘새로이 <語錄:26>, 외로이 <杜詩八:48>, 괴로이 <三譯九:15>, 보비로이 <杜詩九:30>’ 등의 어휘가 현대국어에서 단일 부사어간으로 굳어져 ‘새로이, 외로이, 괴로이, 보베로이’ 등으로 쓰이는 것과 비교된다.

한때 생산적으로 쓰이던 파생접사가 생산성을 잃는 경우, 한자어 어기는 고유어의 경우와 같이 결합했던 파생접사와 함께 단일 어휘로 굳어지기보다는 결합했던 파생접사를 버리고 공시적으로 생산력이 있는 다른 언어형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자어 어기는 결합했던 파생접사를 바꾸어서라도 한자어 어기의 형식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한자 파생어의 특징은 한자어가 한자(漢字)라는 문자와의 연관성 속에서만 성립한다는 특수성에서 연유한다.

V. 맺음말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는 고유어 형태소와 다르게 작용한다. 우리는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이 고유어 형태소와 구별되는 한자어 형태소의 차이에서 연유할 것이라 가정하고, 한자어 형태소의 특징 및 기능을 살펴보았다.

국어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고유어 형태소와 구별되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기술했다.

첫째, 국어 속에 존재하는 한자어는 모두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편의상 국어의 한자어를 “母親,

國家”류의 한자어와 “江, 兄”류의 한자어로 나누었는데, 이 두 유형의 한자어들은 고유어화한 정도가 다르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어화의 차이는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母親, 國家”류의 한자어에는 의미를 첨가하는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이 불가능하지만, 고유어화가 진행된 “江, 兄”류의 한자어에는 이러한 결합이 자연스럽다.

고유어 형태소와 구별되는 한자어 형태소의 두 번째 특징은 단어형성에서 갖는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이를 “형태론적 기능의 제한성”이라고 칭하였다. 우리는 국어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가 갖는 기능을 ‘명사성 형태소’, ‘서술명사성 형태소’, ‘수식사성 형태소’로 나누었다. 이때 ‘수식사성 형태소’는 단독으로 독립적인 어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결국 한자어 형태소는 ‘명사성 형태소’와 ‘서술명사성 형태소’ 두 가지가 파생어 형성에서 어기로 기능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한자어 어기는 ‘명사성 형태소’이든 ‘서술명사성 형태소’이든 모두 ‘명사성’의 기능밖에 갖지 못한다. 이러한 한자어 어기의 제한된 형태론적 기능으로 인해 고유어 명사성 어기와 결합하는 고유어 접사는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지만, 서술어성 어기와 결합하는 접사는 한자어 어기와 전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한자어 형태소는 ‘수식사성 형태소’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수식사성의 기능을 고유어 접두사에 의존한다. 그러나 모든 한자어 어기에 접두사성 형태소가 결합하는 것은 아님을 통시적 고찰을 통해 확인했다. [+외래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던 한자어가 대응되는 고유어를 소실시키고 국어의 단어로 자리 잡는 고유어화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의미의 첨가’를 담당하는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한자어의 고유어화 과정은 중세나 근대를 거쳐 현대국어로 오면서 점차 확대되었을 터인데,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급증한 것은 바로 이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파생접미사의 결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고유어 파생접미사의 생산성인 것을 확인하였다. 중세국어이든 근대국어이든 현대국어이든 공식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파생접사가 한자어 어기에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자 파생어는 고유어 파생어와 서로 다른 통시적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한자 파생어의 경우에는 파생어 형성 규칙의 소멸에 의해 단일 어휘로 굳어지는 통시적 변화를 거부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한때 생산적으로 쓰이던 파생접사가 생산성을 잃는 경우, 한자어 어기는 고유어의 경우와 같이 결합했던 파생접사와 함께 단일 어휘로 굳어지기보다는 결합했던 파생접사를 버리고 공시적으로 생산력이 있는 다른 언어형식을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자(漢字)라는 문자와 연관성 속에서만 성립한다는 한자어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현상임을 지적했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 『國語 接尾辭 研究』. 光文社, 1972.
- 구분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國語學叢書 30, 太學社, 1998.
- 국립국어연구원 편저(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기주연, 『근대국어 조어론 연구(I)』 파생어편. 태학사, 1994.
- 김광해, 『固有語와 漢字語의 對應現象』. 國語學 叢書 16, 塔出版社, 1989.
- 김규철, 「漢字語 單語 形成에 관한 研究 -固有語와 比較하여-」. 『국어연구』 제41호, 국어연구회, 1980.
- 김완진, 「이른 時期에 있어서의 韓中言語接觸의 一斑에 對하여」. 『語學研究』 6-1, 서울대학교 語學研究所, 1970.
- 김장섭, 「形容詞 派生 接尾辭들의 機能과 意味: '-답-', '-스럽-', '-롭-', '-하-'와 '-적'의 경우」. 『震檀學報』 58, 1984.
- _____,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國語學叢書 21, 太學社, 1996a.
- _____, 『국어 파생어의 통사론적 문제들』.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96b.
- 남풍현, 『中國語 借用에 있어서 直接借用과 間接借用의 問題에 對하여』.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1968.
- 노명희, 「漢字語의 語彙形態論의 特性에 관한 研究」. 『국어연구』 95호, 1990.
- _____,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민현식, 「'-스럽다, -롭다' 접미사에 대하여」. 『국어학』 13, 국어학회, 1984.
- 宋基中, 「現代國語 漢字語의 構造」. 『한국어문』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 宋喆儀, 「派生語 形成과 音韻現象」. 『國語研究』 38, 1977.
- _____, 「派生語 形成과 通時性的 問題」. 『國語學』 12, 1983.
- _____,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제약 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 1988.
- _____,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국어학 총서 18, 태학사, 1990=1992.
- 宋喆儀·李南淳·金倉燮, 『국어사전에서의 파생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992.
- 沈在箕, 「漢字語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8호, 1987.
- 安秉禧·李珖鎬, 『中世國語文法論』, 學研社, 1990.
- 李翊燮, 『漢字 造語法의 類型』.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1968.
- _____, 『漢字語의 非一音節 單一語』. 金載元博士 還甲紀念論文集, 1969.
- _____, 「국어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단국대)』 5, 1975.
- 李翊燮·任洪彬, 『國語 文法論』. 學研社, 1983.
- 趙世用, 『漢字語에서 改鑄된 歸化語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저,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1995.
허웅,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 1975.
____,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탑출판사, 1992.

국 문 요 약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한자어 형태소는 고유어 형태소와 구별되는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어 속에 존재하는 한자어는 모두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국어의 단어형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유어화의 차이는 국어의 단어형성에서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자어에는 의미를 첨가하는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이 불가능한 한자어와 그러한 결합이 가능한 한자어가 있는데, 이 두 유형의 한자어들은 고유어화한 정도가 다르다고 해석하였다.

고유어 형태소와 구별되는 한자어 형태소의 두 번째 특징은 단어형성에서 갖는 기능이 상당히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이를 “형태론적 기능의 제한성”이라고 칭하였다. 한자어 어기는 ‘명사성 형태소’이든 ‘서술명사성 형태소’이든 모두 ‘명사성’의 기능밖에 갖지 못한다. 이러한 한자어 어기의 제한된 형태론적 기능으로 인해 고유어 명사성 어기와 결합하는 고유어 접사는 한자어 어기와 결합할 수 있지만, 서술어성 어기와 결합하는 접사는 한자어 어기와 전혀 결합할 수 없는 것이다.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은 한자어의 고유어화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한자어의 고유어화 과정은 중세나 근대를 거쳐 현대국어로 오면서 점차 확대되었을 터인데,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접두사성 형태소의 결합이 현대국어로 오면서 급증한 것은 바로 이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파생접미사의 결합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고유어 파생접미사의 생산성인 것을 확인하였다. 중세국어이든 근대국어이든 현대국어이든 공식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파생접사가 한자어 어기에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자(漢字)라는 문자와 연관성 속에서만 성립한다는 한자어의 특수성 때문에 한자어 파생어는 어휘화가 잘 일어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투고일 2015. 9. 21.

심사일 2015. 10. 20.

게재 확정일 2015. 12. 2.

주제어(keyword) 한자어(Sino-Korean), 한자어 어기(Sino-Korean base), 한자어 형태소(Sino-Korean morpheme), 고유어 파생접사(Native Korean suffix), 어휘화(Lexicalization)

Abstracts

A Historical Consideration on Korean Stem-formation Composed of Sino-Korean Base and Native Derivative Suffix

Lee, Hyun-ju

This thesis is the diachronic study on the stem-formation which is composed of sino-korean base and native korean suffix.

There are a small number of words of the structure of 'stem+stem' in the koran words composed of sino-korean morpheme and native korean morpheme. But, the greater part of the korean words composed of sino-korean morpheme and native morpheme is the derivative derived from a sino-korean base.

The phenomenon is due to the fact that sino-korean morphemes don't function as the derivative suffixes which change the grammatical category of original words or add an additional meaning to words.

A derivative suffix of native korean freely combines with native korean base, but it doesn't combine with sino-korean base. This difference in the combination with derivative suffix make us realize the peculiarity of sino-korean derivative.

We've found that the degree of nativeness of sino-korean and the productivity of suffixes have a effect on the combination of sino-korean bases and native korean suffixes.